

디지털스틸카메라(DSC) 산업동향

편집실

DSC(디지털스틸카메라)의 수요가 세계로 확대되고 있어 2004년도 디지털가전을 견인할 것이다. 보다 소형이고 경량화, 고화소화, 고배율줌의 탑재, 동화상 기능의 표준 탑재 등으로 디지털일안레프의 본격적인 상품화도 시작되었다. 2004년은 이런 진화가 더욱 가속될 것으로 내다본다.

DSC시장동향에 대해서 캐논이미지커뮤니케이션에서는 필름카메라의 가동대수가 세계에서 3억 5,000만대라고 추정한다. DSC는 지금은 수요가 확대되고 있지만 누계에서는 아직 1억대에 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캐논은 앞으로 매년 1천만대씩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다.

소니 IT&모바일솔루션즈는 유럽시장의 수요가 서유럽, 중유럽 뿐 아니라 동유럽, 러시아까지 확대됨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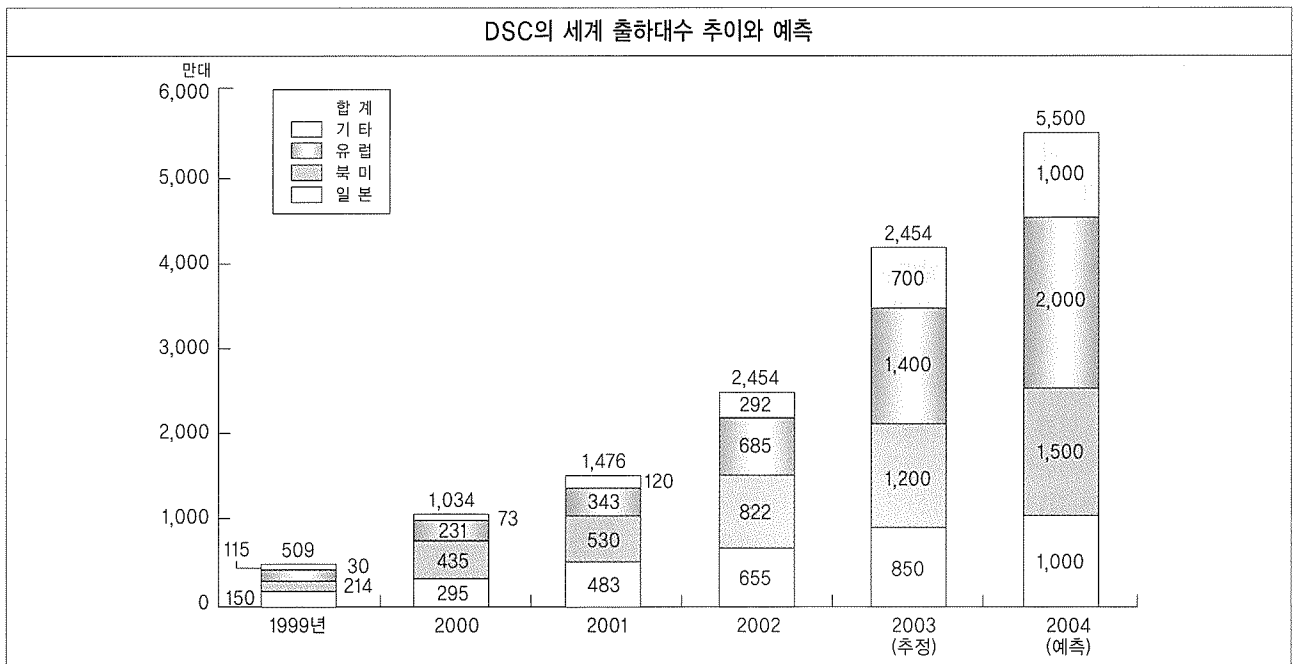
DSC는 2004년도 계속 확대, 특히 유럽과 아시아는 계속 고성장을 유지하고 미국시장도 견실히 추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본도 늘고 있지만 성장률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측한다.

유럽의 신장은 독일 미디어마크트, 프랑스 파낙, 영국 덕스즈 등 양관점이 DSC매장을 확충하고 사업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2003년은 고화소화·경량화가 진행되어 디지털일안레프카메라의 본격적인 상품화가 시작되었다.

후지사진필름의 2004년 제품은 오랫동안 축적된 필름카메라의 기술을 하나하나 활용해 DSC의 완성도를 높임으로써 더욱 고화소화될 것이다. 2002년 후반부터 2003년에 걸쳐 300만화소가 정착되었다. 지금은 400만 화소품이 주류가 되고 다음은 500만 화소품이 보급기가 될 것이다.

DSC의 세계 출하대수 추이와 예측



(자료 : 카메라영상기기공업회, 예측은 일본전파신문사)

2004년은 콤팩트타입에서도 600만화소 기종이 등장할 예정이다.

카시오계산기는 고화소 경쟁이 계속된다고 하지만 화소경쟁의 시대는 끝났다고 판단해서 오히려 디자인이나 사용법 등 상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단계에 들어갔다. 축적된 박형화의 기술을 기초로 앞으로도 상품완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마쓰시타전기는 SD메모리카드를 응용한 MPEG2 비디오투비 'D-snap'을 2003년 10월부터 발매하고 있다.

'동화상 디지털카메라'에서 축적한 기술을 살려 산요전기도 고화질무비와 고정세 사진을 1대로 즐길 수 있는 'Xacti(작티)' (7만5천엔)를 2003년 11월부터 발매했다. 이것은 DSC의 발전형으로써 주목된다. 언제 어디서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유비키타스상품'으로써 산요전기는 향후 1년간 20만대 이상 판매할 계획이라고 한다.

디지털일안레프의 본격적인 상품화가 시작되었다.

캐논은 인기를 모은 디지털일안레프카메라 'EOS10D'에 이어 새로이 보급형 디지털AF일안레프카메라 'EOS Kiss Digital'을 2003년 9월부터 발매하고 있다. 오픈가격이지만 보디가 약 12만엔, 렌즈키트는 약 14만엔이다. 펜탁스도 참여해 업계 초소형, 경량을 특징으로 하는 'istD(오픈가격, 실세 렌즈부착 약 21만엔)를 9월부터 발매했다. 수요는 세계에서 2004년도 60만~80만대, 2004년도 180만대, 2005년도 250만대로 예측하고 있다.

올림푸스도 'E1'을 2003년 10월에 발매하고 있다. 가격은 렌즈포함 30만엔 가량으로 원래 전문가를 겨냥하여 만든 제품이다. 니콘은 2004년 3월에 10만엔대를 상정하여 보급타입의 렌즈교환식 디지털일안레프카메라 '니콘 D70'을 발매할 예정이다.

세계적인 수요 확대로 주요업체는 생산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요전기는 2004년도에 2천만대의 생산을 계획하고 한국공장은 현상 유지하면서도 인도네시아, 중국 동완에서 두배로 증산하고 일본(다이토공장)도 2할 증강할 계획이다. 소니는 중국내수용의 일부기종을 제외하고 전 수량을 소니EMCS(美濃加茂, 幸田, 一宮)으로 생산을 증강한다. 캐논은 일본에서는 오오이타캐논, 해외에서는 캐논옵토말레이시아, 佳能珠海(중국 광둥성 주해시)의 3거점에서 생산하는데, 오오이타에서는 제2공장을 계획하고 2005년의 가동을 목표로 한다.

후지사진필름은 렌즈를 후지사진광기, CCD를 후지필름마이크로디바이스에서 생산하고 일본에서는 후지필름포토닉스에서 조립하고 있다. 중국 소주에서도 2백만 화소급을 중심으로 세계시장을 향해 생산하고 있다. 올림푸스광학공업은 일본(나가사키현, 올림푸스옵토테크놀로지)와 중국의 심천(전액출자회사)을 중심으로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펜탁스는 베트남, 필리핀에서 생산하고 필리핀에서는 생산을 증강하기 위해 제2공장을, 중국에서는 4개소에 위탁생산하고 있지만 2004년 중엽부터 중국상하이에서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다.

카시오계산기는 야마가타카시오를 거점으로 아이치와 중국에서도 위탁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생산 체제는 중국국내 판매에 대응하기 위해서 증강한다. 현재는 일본 7할, 중국 3할의 생산대수 비율이지만 가까운 장래는 반반으로 할 계획이다. ●

DSC 주요업체 생산추이와 2004년도 생산계획

(단위 : 만대)

	02년도	03년도 추정	04년도 계획
산요전기	600	1,200	2,000
소니	560	1,000	미정
캐논	450	850	1,250
올림푸스광학공업	460	750	1,100
후지사진필름	460	650	1,000
니콘	336	560	825
카시오계산기	140	280	400